

2023년 4월 9일(가해)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백) 주님 부활 대축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4월 ]



#### 복음화 지향 :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 For a non-violent culture

국가와 시민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벅찬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7, 1-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부속가** 주보 4면 참고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10

<예수님께서는 되살아나셨고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입니다.>

**영성체송**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 영성체 후 묵상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고쳐 주신 것은,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것을 굳게 믿고 이웃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우리들의 묵상/체험 - 강만연님 ♣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갈릴래아 호숫가로 우리 모두 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신 곳을 유심히 본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이른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몹시 걱정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래아로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라는 언지를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래아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신다는 갈릴래아로 갈 겁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로 가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또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보내신 모습에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에 그들이 새로운 야망을 가지고 뭔가 하려는 꿈을 키웠는데, 그 일이 무너지니 실망과 절망으로 변했을 겁니다. 이젠 그런 건 하나의 헛된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 고기잡던 장소에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 그들의 생업이 이루어진 장소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래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곳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로 가신 상징적인 이유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땐 인간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난 장소였다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갈릴래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주님으로 만나게 될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임무를 잘 해 줄 것을 믿고 승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래아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갈릴래아는 어디가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동굴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져야,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든 계시지 않든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돌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이 있는 한 우리는 아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이 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돌은 실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수없이 많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욕심,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남을 시기하는 시기, 인간이 가진 모든 욕심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있는 한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우리의 눈을 이런 게 가리기 때문에 뵈지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뵈기 위해 지금 갈릴래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뵈 수는 없을 겁니다. 눈을 뜨고도, 바로 앞에 계셔도, 자기가 자신의 눈을 스스로 탐욕 때문에 가리게 되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어도 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다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로 오셨을 때 이 갈릴래아는 더 이상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장소인 갈릴래아를 상징할 것 같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곳에서 탈출해야만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어둠 같은 동굴을 밝혀줄 초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마음의 돌도 치워주실 것도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전문 링크] [https://maria.catholic.or.kr/mi\\_pr/missa/bbs\\_view.asp?id=2003674&ref=134602&menu=4770](https://maria.catholic.or.kr/mi_pr/missa/bbs_view.asp?id=2003674&ref=134602&menu=4770)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 왜 매년 바뀔까?**

4 월 9 일 주님 부활 대축일은 '축일 중의 축일', '대축일 중의 대축일'로 지칭되는 전례주년의 정점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동방 교회가 성주간을 '대주간'이라고 부르듯 이날을 '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시대부터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했고, 이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날에 관심을 가지며 연중 축일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는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4 월 9 일이지만, 지난해는 4 월 17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춘분이 지난 뒤 첫 만월(滿月) 바로 다음 주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중 축일로 주님의 부활을 지내게 된 것은 2 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니산(Nisan) 달 14 일에 지낼 것인가, 아니면 니산 달 14 일 이후에 오는 주일에 거행할 것인가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2000 여 년 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유대인들의 파스카(과월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과월절은 유대인들 달력으로 니산 달 14 일이었는데, 이날이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낮과 밤이 갈아지는 춘분은 신비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춘분이 있는 달을 한해 첫 달로 삼고 파종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바로 니산 달이었으며 니산(Nisan)은 길 떠나다, 출발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처럼 유대교에서 초봄 니산 달 14 일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므로, 부활 축일 역시 요일과 관계없이 니산 달 14 일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면 서방교회는 니산 달 14 일인 만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오는 일요일을 축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325 년 니케아공의회는 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교회가 춘분이 지나고 보름 다음 처음에 오는 주일(3 월 22 일부터 4 월 25 일 사이)에 부활 축일을 지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서방교회에서는 그레고리력을 쓰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초기 교회의 율리우스력을 씁니다. 그래서 니산 달 14 일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가 다른 이유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3 월 22 일에서 4 월 25 일 사이에 부활절을 맞지만 동방교회에서는 4 월 4 일부터 5 월 9 일 사이에 축일이 옵니다.

**캔버라 골번 교구 다문화 미사 (Multicultural Mass) 안내**

- 일시 및 장소 : 4 월 16 일 (부활 제 2 주일) 오전 11 시, 주교좌 대성당(St. Christopher's Cathedral)
- ※ 한복이 있으신 교우분들께서는 한복을 입으시고 미사에 참례해 주세요. 미사 후 다문화 공동체별 음식 나눔이 있습니다.
- ※ **당일 오후 3 시 한인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2023 년 어머니의 날 행사 참가자 모집**

올해 어머니의 날(5 월 14 일 주일)을 맞이해 여성 교우분들을 위한 와이너리 방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여성 교우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 일시와 장소 : 5 월 12 일(금요일) 오전 11 시(성당에서 출발) ~ 오후 2 시(와이너리에서 출발)  
Shaw Wines & Olleyville Restaurant (34 Isabel Drive Murrumbateman NSW 2582)  
[와이너리 홈페이지] <https://shawwines.com.au/visit-us/>
- 참가 신청 및 문의 : 소속 소공동체 반장님들께 4 월 30 일(주일)까지 참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우분들은 서은주 데레사 자매님(총무)께 참가를 신청해 주세요.
- 성당 지원 : 와인 시음비용(1 인당 \$5 불) 및 단체이동차량(성당↔와이너리 왕복 구간)



| 주님 부활 대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④**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식단 짜기  
(쇠고기 > 양고기 > 양식새우 > 돼지고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⑧**

5장의 종이청구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기  
→ 0.03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곶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미사 참례자수

3월 26일	성인 48 아이 17	4월 2일	성인 49 아이 12
--------	-------------	-------	-------------

□ 우리들의 정성 (4월 1일(토)~7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김천주	서진원	손재호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명진	이지영	조성민	주정자	허준	
교무금 \$840 (15 가정) / 봉헌금 \$380 / 사순시기 사랑의 나눔 모금액 (누계 \$100)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Reference 또는 Message란에 납부자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독서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16일, 부활 제 2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문화 미사
예물봉헌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16일, 부활 제 2주일	루카반 다문화 미사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6일) 다문화 미사 → (23일) 마르코반 → (30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16일) 다문화 미사 → (5월 7일) 요한반

♡ 고다인 라파엘라의 유아세례를 축하합니다.

♡ 박준형 안토니오(14일, 청년)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희생자, 피해자와 유가족, 실종자들과 피해 복구인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바랍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하느님의 자비 주일(부활 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의미와 파우스티나 성녀에 관한  
기사 (아래 링크 클릭)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93292](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93292)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